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미국과 이란 간 정전 양해각서(MoU) 전문과 평가



2026년 6월 14일,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양국 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정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Axios)는 6월 14일 체결된 정전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의 동맹국들은 본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앞으로 상호 간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고,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영구적인 전쟁 종료와 본 항의 기타 조항들을 확인할 것이다.
2. 미국과 이란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3. 양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체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기타 해상 통행 방해 조치를 철회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에 선박 통행은 이란의 전쟁 이전 수준 회복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5.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 해를 왕래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최초 60일 동안에는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상선 운항은 즉시 재개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 제거와 이란의 기뢰 제거 작업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 완전히 정상화될 예정이다. 또한 이란은 오만 술탄국과 협의하고,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논의를 진행하여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향후 해협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6.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 체결될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될 예정이며, 필요한 금융 거래에 대한 허가·면제·승인 조치는 미국이 제공할 것으로 하였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및 미국의 모든 일방적 제재(1차·2차 제재 포함)를 종료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제재 해제가 최종 합의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8.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과 이란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저농축화(downblending)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양국은 최종 합의에서 적절한 틀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과 관련된 우라늄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핵 문제가 최종 합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인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를 즉시 다루기로 하였다.

9.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양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역내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하였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시점부터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를 통해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및 파생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 거래,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11. 미국은 본 양해각서 이행과 동시에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자금 해제 절차에 대해 합의하며,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

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허가 와 승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12. 미국과 이란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공동 집행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이행이 개시되고 지속된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나머지 조항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을 양국 간 독점적 협상 체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14. 최종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정전 양해각서에 대해 미국이 기대했던 전략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된 합의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과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으며, 최종 합의에서는 미국이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완화, 경제 지원 등 상당한 양보를 제공한 반면 이란은 경제 회복과 역내 영향력 확대의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이미지 설명 :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 정전 협정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www.countercurrent.org

* 내용 출처: Axios, June 17, 2026; Foreign Policy and BBC, June 18, 2026.

*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